



금, 경기,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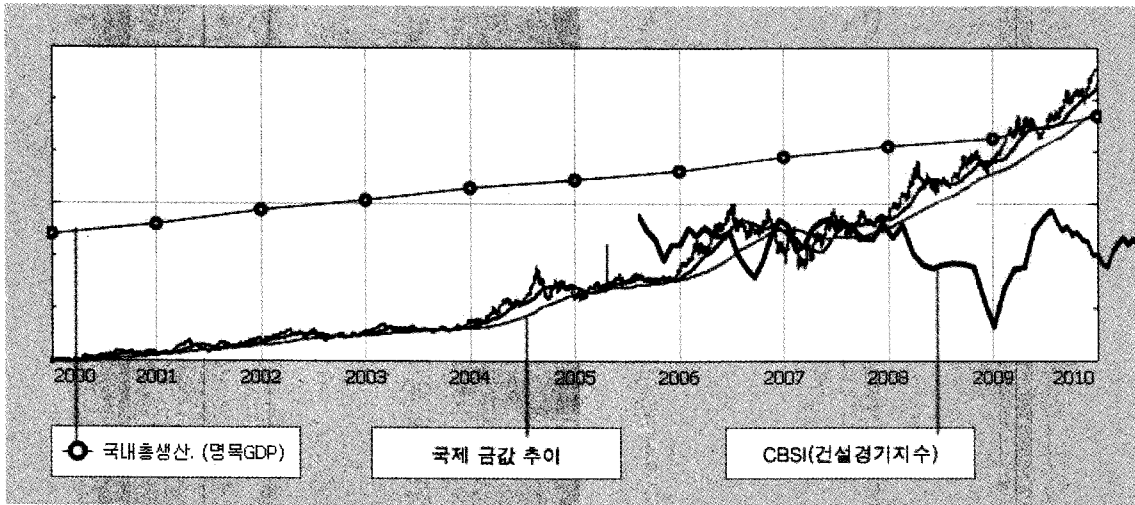
김현회 원캐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최근 금값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변동 추이를 보면 금값은 거의 1,000% 가까이 올랐다. 그래프에서 보면 2004년 이후부터는 더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반면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근 5년간 거의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낙관적인 때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2011년 9월~ 2011년 10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STS관 인상 예정. 동관 LME시세는 인하 예정. 강관 단가인상 미지수. 단, 환율과 국제정세가 변수 - 붕·형강류, 수요 부진 등으로 보험세 유지 - 철 후렌지 5% 협가 인하(일부 판매사)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스크랩 인상에 따른 제강사들과 건설사들 간의 철근 단가 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공급 중지 결정 내림 - 제강사의 공급 중지 결정이 강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다소 유동적 - 강관은 10월에 최소 5% 인상 될 가능성 있으나 건설시장 침체로 실제 반영여부는 미지수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LME 시세는 491원 인하된 9,979원으로 확정 -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비철금속 가격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하여 금락세를 연출 - 10월 LME 시세는 약 200~400원 인하 예상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STS관 BASE 100원 인하 - 현재 니켈 국제시세 톤 당 21,000불 유지. 10월 말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니켈 단가는 약 보험세 전망 - 10월 STS관 BASE는 50원~150원 인상 예상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장 상황과 맞물려 상당 폭 인하된 단가로 판매하는 공급사들이 많아 실 투입 물량과 현금 조건일 경우 기대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일부 판매사의 경우 자금 유동성 확보 및 할당량 소화 차원에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있어 경영 악화에 따른 공급 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주요 경기현황 지표]



(자료: 원컨네트웍스 2011년 9월)

금값의 변동은 경제 위기의 시금석이다. 특히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징성이 크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면 할수록 경제 불안 정도와 금 수요는 거의 비례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 금값은 지난 10년 동안 1,000% 가까이 올랐다.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와 단기 불안에 따른 현금 보유 필요성으로 급락하기도 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은 그 상승의 대세를 쉽게 꺾지는 못 할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두 배 성장도 못했다. 꾸준하기는 하지만 극히 완만하다. 금값의 오름세와는 비교도 안 된다.

건설회사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CBSI 즉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라는 것이 있다. CB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황, 100미만이면 불황을 업계가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CBSI 지수는 그래프에서 보면 5년여간 100을 넘지 못

하고 있다. 한 번도 불황이 아니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예전 중동 건설 붐, 70~80년대 산업 호황기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CBSI는 결코 100을 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회원사들이, 완만한 경제성장, 금값으로 대변되는 경기 불확실성의 점증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준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더욱 불안해질 향후 경제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컨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